

다운회 ‘아름다운 작업환경센터’ 무료검진

- 서울센타 무료검진 자원봉사

다운증후군 근로자는 게으름을 모른다?



아침 8시, 차량이 늦어 죄송하다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 투덜대는 사람들이 주춤주춤 뒤쪽으로 이동한다. 그 빈 공간으로 대걸레 한 자루가 거침없이 밀려온다.

청소 한번 요란하게 한다고 짜증을 내던 남자의 목소리가 흐려진다. 이유는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청소하는 사람이 다른 아닌 다운증후군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빙그레 웃음이 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해요' 라는 말이 절로

난다. 보기에는 간단한 일이지만 다운증후군 친구가 저 일을 익히기엔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열심이다. 복적되는 승객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쉬었다 해도 되련만 계속해서 대걸레를 밀고 있다. 그 덕분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앞으로 뒤로 주기적인 이동을 계속해야 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급히 달려온 청소 아줌마는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청소하냐며 야단치곤 다운증후군 근로자의 손을 잡고 지하철플랫폼을 빠져나갔다.

문득, 저 다운인은 오늘부터 일한 게 아닐 텐데 그동안은 왜 눈에 안 띄었을까?

아마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있듯이 인제서야 눈에 띄는 것은 오늘이 바로 서울센타에서 무료검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업활동센터'의 다운증후군 근로자

다운인의 경우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혈관 찾기가 어려워 채혈이 힘들었다. 하지만 채혈받는 다운인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그 정도의 어려움이야...



로자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 일 것이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다.

‘아름다운 작업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 중증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8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평가, 조립 및 단순가공 작업을 포함한 직업적응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새로운 시작, 공릉동 <다운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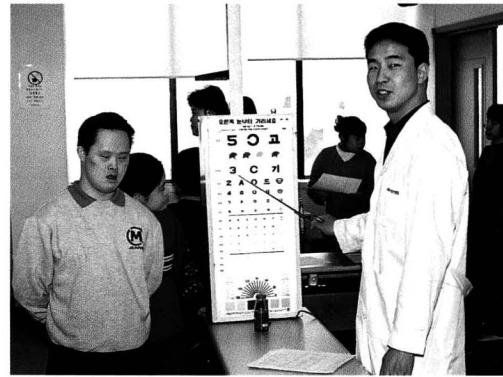
새로 지은 ‘다운복지관’은 어떤 모습일까?

작년검진 때 올해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검진할 것이라고 약간 들뜬 표정으로 인사하던 선생님이 떠올라 한 시간 반 이상 달려온 시간 내내 기대감과 궁금함에 설렸다. 태능입구역에 내려 조금 걸으니 다운복지관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고 드디어 다운복지관.

15년 더부살이를 끝내고 작년 7월에 개관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다운복지관을 바라보니 내 집을 장만한 것 같은 감회가 밀려온다.

3층 임시로 마련한 검진장소에 들어서니 벌써 검진에 시작되었다. 서울센타 식구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들어서니 반가운 얼굴이 달려와 꾸벅 인사를 했다. 또래에 비해 현저히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난 믿고 싶었다.

난 그저 믿음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시력측정을 하고 있는 특징(?)있는 외모의 설봉수 직원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귀뜸도 있었지만 한 자 한 자 짚어가며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도 아끼지 않던 시력측정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때문이기도 하다. 차례대로 내려와 작은 글자를 짚으며 무슨 글자냐고 몇 번 물어보고 대답이 없자 설봉수씨는 가리키는 손을 내려 시력을 기입하는 순간, 그 다운회 친구가 한쪽 눈을 가린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와 그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다. 순간 당황한 설봉수씨. 친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형제를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체념과 실망보다 기쁨을 더 주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슬



▲ 시력 측정을 하고 있는 특징(?) 있는 외모의 설봉수 직원. 다운회 친구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직원이다.

▲▲ 청력검사. 다운회 친구들이 검사방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검사가 힘들었지만 이성호 간호사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 이번 검진으로 장애인으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에 정이 간다는 강미선 간호사. 신중하게 혈압검사를 하고 있다.

피했을 그 마음이 느껴졌다.

작년에 러브레터(?)를 쥐어 줬던 다운회 친구의 구애는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이쁘다”로 시작한 그의 칭찬에 송민숙 병리사는 그저 웃어 줄 뿐이다. 작년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눈치다.

청력검사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무료검진에 참여한 이성효 간호사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다운회 친구들은 소리와 상관없이 손을 들었다. 두 번 세 번 다시 설명하고 작업재활팀 선생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진행하다 보니 줄이 길어진 것이다. 간혹 검진자가 정확하게 반응을 보일 때면 이성효 간호사의 입가에 감격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채혈은 예상 밖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작년에 채혈을 무서워해 4명이 붙어서 겨우 채혈을 마친 윤민정씨(27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채혈을 마쳤다. 심지어는 한번더 채혈하고 싶다는 당당함(?)도 보여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다른 곳에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운동발달이 늦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혈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아령을 잡고 채혈을 하는 것. 눈을 가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채혈을 끝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 자원봉사

다운회 친구들이 검진하고 있는 서울센타 직원에게 호감을 보인 경우는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바로 강미선 간호사. 다운증후군 장애인과 처음 대화를 해 본다는 강간호사는 자신보다 한살이 많은 허지민씨(27세)와의 만남에서 그 순수함과 장애인으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모습에 정이 간다고 했다. 자신이 보통사람이면서 또한 비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운인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 50%가 넘는 답변자가 관련교육시설 및 기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보다 비장애인의 인식변화가 더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자원봉사가 비장애인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무료검진에 참여해 비장애인의 따뜻한 시각을 전하고 온 서울센타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김민**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다운증후군의 특징을 처음으로 밝힌 존 랑던 다운(John Landon Down)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병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으로 걸리는 병도 아닌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명당 1명이 걸리는 확률적 불행이다.

